

‘대한적십자사 부산 불교봉사회’ 지구협의회로 승격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니 탄탄대로”

‘불교 봉사회’ 통한 조직 관리 한 몫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불교 봉사회로 첫 깃발을 올린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 이하 불교봉사회)가 2월 15일, 지구협의회로 승격되면서

서 불교 봉사활동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어 화제다. 대한적십자사내에 ‘불교’의 이름으로 지구협의회로 승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봉사회 회원들이 지구협의회 승격 인증서를 받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동래지구협의회에 소속된 단위로 조직이었던 불교봉사회가 1년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5개의 단위를 들 수 있는 지구협의회로 승격된 것은 대한적십자사 내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불교봉사회의 경우, 10년이 걸려 지구협의회 승격을 이룬 것만 봐도 대한적십자사내에서 불교봉사회의 지구협의회 승격이 갖는 의미를 짐작하고 남는다.

연 봉사인원 4574명, 연 예산 2천4백여만원, 월 고정 지출액 60만원. 이 같은 통계수치는 다른 지구협의회와 3배, 여타 단위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또한 불교봉사회 창립 당시 13명이던 회원은 70명으로 늘어났으며, 후원자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박추자, 국청사, 원호안, 여여선원 등 부산지역 사찰에서 공부해온 불자들의 신심과 이타행이 대한적십자사의 봉사이념과 부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둔 셈이다. 지구협의회 승격의 자격 요건이 되는 발전 가능성에 눈

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봉사회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펼쳐지는 복지관 봉사, 북한동포돕기, 쓰나미 구호 성금 2백만원 전달, 김장 봉사 등을 비롯 지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동안 ‘불교봉사회’는 불교봉사자들을 한데 모아 내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 체계적인 불교의 힘을 대변해왔다.

불교봉사회는 지구협의회 승격을 계기로 하나단위회(회장 심금주), 두리단위회(회장 김호선), 연등단위회(회장 최상연), 유심단위회(회장 황재연), 수련단위회(회장 권점미) 등의 단위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봉사회는 창립 2주년이 되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창립 기념 법회를 갖고 지구협의회 승격을 자축하게 된다. 이날 법회에는 그동안 후원해준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김포사주지 혜중 스님, 국청사 주지 계전 스님을 비롯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박추자 불교봉사회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겠다는 한 생각으로 달려왔던 이처럼 기쁜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적십자사 발전과 불자들의 봉사 참여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nhcheon@buddhapia.com

거사들 바람 심상치 않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유마회 창단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에 거사불교의 바람이 분다.

통도사부산포교원 부설 신행학교와 대광불교대학에서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마친 거사들이 유마회를 창단하고 거사 중심의 신행활동을 표방하고 나섰다.

2004년 12월부터 준비 모임을 가져오다 26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월 17일 창단한 유마회는 2월 16일에는 정기법회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신행학교나 대광불교대학을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열의를 세운 유마회는 우선 통도사부산

포교원 내 행사에서 차량 정리 봉사, 법당 안내, 굿은 일 등에서 거사들의 힘을 발휘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열리는 정기법회나 초파일 특별행사인 삼천배 법회, 성지순례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봉사도 역량을 키운 후 장기적으로는 포교를 겸한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신행학교 10기, 대광불교대학 4기를 수료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명복(59·해광) 거사는 “포교원내의 여러 신행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펴는 봉사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상락정 배산 실버빌 가을 개원



2004년 3월에 착공한 부산광역시 최초 실버노인요양시설인 상락정 배산 실버빌(이하 상락정·사진)이 민원을 원만히 해결

결하고 2005년 가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진척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도(이사장 혜홍)는 최근 지상 3층 연면적 611평으로 약 9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락정의 최종 투시도를 선보였으며,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간 준비를 갖춘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혜홍 스님은 “사람이 나면 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제 원만히 해결됐다”며 “하루빨리 문을 열어 어르신들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청소년 쉼터·양정수련관 교류

가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산시 청소년쉼터(소장 범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을 청소년이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월 16일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요일은 자원 봉사의 날’ 행사에서 가을한 지 일주일의 막 내린 한아가(19)는 장애아동의 방과 후 교실을 도우며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다.

청소년쉼터와 양정청소년수련관이 서로 교류 연계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 외에도 가을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맛보도록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의미를 더하는 봉사 현장이었다.

부산시청소년쉼터에는 현재 입소자 3명 중 2명이 집에 돌아간 상태여서 쉼터 봉사자와 함께 한 현아는 장애아동의 학습을 도우며 기쁨으로 인한 불안을 떨치고 준비 중인 검정고시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 기자

한몽불교협 설립기념 법회

(사)한·몽불교협회(대표이사 지성)

는 2월 26일 오후 4시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설립기념 축하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과 몽골 최대사찰인 간단사 대표단, 우두원 흥대보 주한몽골대사, 이외수 한몽불교교류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 민간 교류 지방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앞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구상중이다.

특히 설립 기념 법회 다음 날인 27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초청, 위문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보현회 회장 이·취임식

부산개인택시 보현회(회장 김신환)는 2월 17일 범어사 동래포교당 법문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법문사 주지 선래 스님, 이신복 동래구청장, 부산 보현의식 이기표 원장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새로 취임한 김신환 회장은 “앞으로 불교행사는 물론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만해마을, 문학 총본산 자리매김



세계문인, 남북 학술대회 등

‘아카데미’ 지역민에 큰 호응

백담사 만해마을(사진)이 올 한해 국제 문화 행사와 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서 한국문학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7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시상, 전국고교생백일장 등의 예년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문인대회 개최를 함께 추진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또한 8월 만해축전에 맞춰 남북한 만해 학술대회를 열어 남북한 학자들이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마

3월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본격 추진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추진과 관련, 김양수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한 데 이어 3월 중 양산에서 국회의원회의 ‘불교문화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해 특구 지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지 2월 9일자 5면 참조)

김 의원은 특히 “한국의 3대 사찰중의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가 불교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체류형 관광 벨트화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14일 밝혔다.

금정산·천성산 살리기 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은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금정산과 천성산 고속철 풍포를 막기 위한 참회정진기도 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가 봉행한 참회정진 기도는 지을 스님 단식 100일째를 맞아 조계사에서 진행했던 참회정진 기도를 이어가며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풍포를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의 3대 사찰중의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가 불교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체류형 관광 벨트화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14일 밝혔다.

천미희 기자

강화 선원사군·교도소 등 보시

인연 강화 선원사가 부처님 오신날에 달 등을 전 지역 육·해·공군 법당과 교도

소·구치소 법당에 무상 보시한다.

주지 성원 스님은 “군·교도소·구치소 포교는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등을 보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원사는 등이 필요한 각 군·교도소·구치소 법당이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면 전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원사는 코팅지로 제작된 보관이 가능한 등 5톤 차량 네대분 분량을 확보해 놓았다.

(032)933-8234 한명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 3년과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 2년과정: 2005년 2월 5일(토) 개강 현재접수중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5년 3월 9일(수) 오후 2시개강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2005년 3월 10일(목) 오후 7시개강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 2005년 3월 8일(화) 오후 2시개강

●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2005년도 불교지도자과정 (3년과정)**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내용
불교학과 (정규, 통신 각30명)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법화경(5)	박 종	이반각 강하는 법화경 5학기에 해당하며, 제2종 예선인원중에서 28명 보충보살 전법승자까지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해심경(2)	모주선	모주선님이 강의하는 해심경은 유식학의 소의 경전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농업경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농업경 보경소(7)	송환우	대승수행자의 꽃인 농업경은 이제 7번째 강의를하며 관해승 이근환의 수행편지와 농업주의 적용을 강의한다.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아래한과 열한)	최봉수	근본불교의 수행사제인 아야세정의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과와 일만에 대해 공부한다.

**3. 개강일시** 불 교 학 과 2005년 3월 7일(월) 오후 7시  
농업경학과 2005년 3월 8일(화) 오후 2시  
근본불교학과 2005년 3월 10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문가독전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본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문의 교부**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5년도 (2년과정)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불교한글의식교육원**

● 정규과정 (2년)

실습편: 무진스님 이론편: 심만춘스님  
전통과 한글 의식 작법 실습과 이론·천도 의식

● 주,야간과정 (2년)

지도법사: 양성도(야간), 문중순(주간)  
예경의식·현공의식·법회 의식·시다림

● 바라과정 (2년)

지도법사: 인각스님  
요점바라·천수바라·나비춤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한글불교의식회망자	● 입학원서 1통	● 매주 목요일(정규반) 오후 1:00 ~ 5:00
● 바리반 20명(2년)	● 주민등록증 1통	● 매주 목요일(바리반) 오후 3:00	● 매주 목요일(바리반) 오후 3:00
● 주·야간반 20명(2년)	● 주민등록증 1통	● 매주 목요일(주간반) 오후 12:30	● 매주 목요일(주간반) 오후 12:30
	● 주민등록증 1통	● 매주 목요일(야간반) 오후 7:00	● 매주 목요일(야간반) 오후 7:00

**3. 개강일시** 토 오 반: 3월 12일(토) 오후 1시  
수요일반: 3월 9일(수) 오후 7시  
목요일반: 3월 10일(목) 오후 12시30분  
바 리 반: 3월 11일(금) 오후 3시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 특 전**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학사 수여